



한기홍 목사는 정치가를 꿈꾸던 그를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품은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했다. ©기독일보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다” 한기홍 목사의 순종과 선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내가 짜놓은 내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께서 지우고, 그분의 계획을 다시 써넣으시려 할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항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내가 붙들고 있던 확신과 기대, 그리고 나뒀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를 그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묻게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

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가?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의 삶에도 이 선택의 충격이 담겨 있다. 그는 그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결국 축복이다.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인생을 묻다 한기홍 목사의 어린 시절은 경기도 안성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가기 전까지 한 목사의 정서는 냇가와 논, 밭과 작은 산,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는 그 시절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골의 낭만과 순박함이 내 정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서울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책상 위에 선을 긋고 넘어오면 밀쳐내는 도시의 문화는 어린 한 목사에게 낯설었다. 시골에서는 딱도

나누고 마을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냈지만, 서울의 생활은 더 개인적이고 경쟁적으로 느껴졌다.

어린 시절의 꿈도 여러 번 바뀌었다. 한때는 가수를 꿈꿨고, 중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던 할머니도 이어 세상을 떠났다.

한 목사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국립묘지를 자주 찾았다. 선열들의 묘소를 참배하며 철학책을 읽고, 죽음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인가를 고민했다”며 “나라를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 고민은 정치가의 꿈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친구 덕분에 국회방청석에 앉아 대정부질의를 지켜보기도 했다. 보좌관들과 토론하듯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언젠가 자신도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정치의 꿈 품고 미국으로...파트 타임 증 복음을 접하다

대학 시절은 한국 사회가 격변하던 1980년대였다. 전두환 정권 시기, 한 목사도 학생회 활동을 하며 당시의 시대 분위기 한복판을 지나갔다. 그러다 학생회장단 해외 순방 프로그램으로 인도, 대만, 태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며 “세계의 중심지인 미국에 가서 선진 정치를 배우고 제대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다. 그러던 중 그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결국 그는 함께 일하던 집사에게 교회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오히려 전도하던 이들이 크게 놀랐다.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설교 내용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어 다음 근무자였던 장로의 권유로 주일에 찾아간 교회가 바로 은혜교회였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만난 첫 교회였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김대원 기자 → 15면에서 계속

美 남침례회 여성 목사 금지 헌법 개정안 통과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여성의 목사, 장로, 감독 직분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SBC 연차총회에서 총대들은 엘버트 몰러 주니어 남침례신학교 총장이 발의한 이른바 ‘진리와 연합 수정안’을 찬성 6,028표, 반대 2,026표로 가결했다. 찬성률은 74.66%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넘겼다. 전체 투표 가운데 20표(0.25%)는 무효 처리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SBC 헌법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내년 연차총회에서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SBC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교회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력 교회는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포함해 목사·장로·감독의 직분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을 인정하거나 임명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번 표결은 전국 교단이 지역 교회에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더그 마이즈(Doug Mize) 목사는 반대 발언에서 “현재도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는 교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이미 마련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조치”라며 “SBC 신앙고백서인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Baptist Faith and Message)가 이미 목회 직분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월드미션대학교 제35회 학위수여식 ...113명 배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지난 6월 6일 오후 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3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61명, 석사 38명, 박사 14명 등 총 113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최윤정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수진과 졸업예정자 입장을 시작으로 학위수여, 총장 연설, 축사, 졸업생 답사 등으로 이어졌다.

임성진 총장 연설,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할 사명 강조

임성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20세기 초 성경번역 운동을 촉발시킨 카메론 타운센드처럼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 내야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오늘 이 시대는 불안과 혼돈, 공포 가운데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



월드미션대학교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3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월드미션대학교

려 있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찾고 있다. 그 진리를 전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메론 타운센드는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질문을 계기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견고히 하며, 오늘

날의 카메론 타운센드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스카 멜로 박사의 축사

축사를 전한 오스카 멜로(풀러신 학교 교수) 박사는 졸업생들에게 ‘질그릇’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네가지를 권면했다.

첫째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

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목회자가 되라”며 “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을 향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높아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진리와 삶, 고통과 복음 사이를 잇는 다리로 부름받았다”며 섬김의 자세를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배우라”고 당부했다.

“WMU는 한몸 공동체”

졸업생 답사를 전한 박소린 학우(M.Div.)는 WMU에서의 시간을 “한몸 공동체”로 회고했다. 박 학우는 “세계 각지의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삶과 사역을 나눌 수 있었다”며 “학업과 사역,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은 전쟁과 같았지만 서로를 공감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WMU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선영 학우(MAGL)의 인도로 ‘현신의 기도’에 이어, 모든 참석자가 함께 교가를 제창한 후 송정명 전 총장의 축도로 예식이 마무리되었다. 주디 한 기자

강해설교의 길을 묻다... 박성근 목사와 함께한 에베소서 세미나

지난 6월 1일,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남가주 새누리교회 2층에서 ‘에베소서,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강해설교에 대한 갈증과 질문을 안고 목회 현장에 섬기고 있는 LA 지역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실제 강해설교 사례를 통해 배우고, 사역의 여정 속에서 품어온 고민과 물음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배움과 교제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는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진행했던 에베소서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재를 소개했다. 또한 강의 후 마련된 나눔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고민을 경청하며 자신의 목회 경험과 통찰을 나누며 격려했다. **에베소서 초기 사본에 1장 1절 ‘에베소에 있는’ 이 누락된 이유**

박성근 목사는 에베소서 1장 1절의 일부 초기 사본에 ‘에베소에 있는(in Ephesus)’이라는 지명이 빠져 있는 이유를 에베소서의 주제와 연결해 설명했다.

“에베소서는 특정 지역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둘러싸고 있던 회람용 서신이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와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다루고 있다.”

그는 에베소서 1장의 핵심 키워드로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를 꼽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할 수 있고 구원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과 유산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베소서 1장의 핵심 대지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인생의 정 위치를 찾는 것, 두번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세번째,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베소서 강해 세미나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그는 인생의 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첫 단계라며 “인생의 정 위치를 찾으라.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인간이 지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 ‘넘치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연구-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를 언급했다. 물질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충만함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후안 까를로스 오르피즈 목사의 저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를 소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1장 후반부에서 인칭 대명사가 ‘우리’에서 ‘너희’로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우리’에서 ‘너희’)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유대인)’에게 주어진 축복이 ‘너희(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보기 위해서는 계시의 성령(Pneuma)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장의 ‘재창조의 역사’를 다루며, 걸작품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美 남침례회.. 여성 목회 논쟁>에 이어서

반면 개정안 지지자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서 성별과 교회 지도력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캔자스주 메이즈 제일침례교회의 설교목사인 폴린 스모더스는 개

정안이 “성경에 충실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성별에 대한 혼란을 발견할 수 있다”며 “목사 직분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문화적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모더스는 발언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제안했고, 총회는 이를 승인해 최종 표결에 들어갔다.

한 총대는 기립 투표를 요청했으나, SBC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개표가 가능한 투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총대는 퇴임을 앞둔 SBC

회장 클린트 프레슬리에게 이번 개정안이 여성 교사나 사역 책임자, 선교사 등 현재 다양한 사역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프레슬리는 “개정안은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물러 총장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SBC 헌법 제3조 1항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개정안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해당 조치가 교단 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면으로 계속

제3회 세대 통합 목회 세미나

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목회의 방향과 실재를 함께 나눕시다.” (골2:28)

1.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목회 (오후 1~2장, 뱀전2:9)
2. 하나님 뜻을 품고 세워 가는 목회 (마28:19~20)
3. 삼대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 (딤후1:5)
4.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5. 오직 성경으로 삼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창~수) “스토리가 있는 세대 통합 경건 훈련”
6.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누리는 부족함 없는 목회(시23편)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교회 노회장

강사: 김경운
(전)광신대학교 총장

- 날짜: 2026. 6.18(목) ~ 6.20(토) 2박 3일
- 장소: The Lighthouse Christian Retreat Center
313 Canvasback Rd, Big Bear Lake, CA 92315
- 등록마감: 6월 15일(월)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교일보)
- 주최: 3대 동일신앙 연구소 미주법인, 기독교일보



건강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주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시128:1~3)

1.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길을 여는 믿음(삼상1~3장)
2.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엡1~2장, 뱀전2:9)
3. 말씀으로 세워 가는 성경적 가정교육(신6:4~9, 요13~17장)
4.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는 믿음의 대화(약1:5)

가정의 고민과 신앙교육의 실재를 함께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



강사: 김경운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교회 노회장



- 날짜: 2026. 6.27(토) 오전10:00 ~ 오후 3:00
- 장소: LA 소망선교교회
(3511 W. Olympic Blvd. #308 LA, CA 90019)
- 등록마감: 6월 20일(토)까지
- 등록 및 문의 전화: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교일보)
- 주최: LA 소망선교교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제46회 졸업식, 44명 학위 수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이하: CPU)가 6월 6일 오전 10시 풀러턴 장로교회에서 2026년 제46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4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승종 목사(KWMC(세계한인선교협의회)에 명예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학위수여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수 목사(전 KPCA 총회장)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미래와 사명을 언급하며 "한인교회는 이제 이민자 중심 구조를 넘어 코리안 아메리칸과 다민족 교회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사학위는 고종필 교수의 진행으로 신학학사 4명, 가정상담학사 3명, 교육학학사 1명이 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수여는 강정자 교수가 맡았다. 박사학위 수여는 김

은철 교수와 민종기 교수가 진행했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종 목사는 답사에서 "명예박사라는 것은 책임"이라며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성장보다는 성숙을, 말보다는 삶으로 드러나는 학교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회장상(성적우수)에 김삼주(M.Div.)가, 이사장상(성적우수)에 박미은(M.A.I.C.S.)과 Christine Jung(B.A.Ed.)이, 총장상(성적우수)에 차흥순(M.Div.)이 각각 선정됐다. 동문회장상(공로상)은 김준태(M.Div.)에게 돌아갔다.

졸업생 답사를 맡은 윤현진(Ph.D.)박사는 자신을 "한 마리 잃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가 '2026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어버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했다. "저는 5년 전에 입학했다.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분들이 학업을 이어갈 때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밀동만 남은 그루터기에서 학위라는 꽃을 피우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영상 답사에 나선 박미은

(M.A.I.C.S.) 학우는 "사명을 확인하고 지식의 깊이를 더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명 총장 "독수리는 순풍보다 맞바람을 타고 높이 난다"

이상명 총장은 졸업생들을 향해 "순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맞바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격려했다. 특히 "독수리는 순풍보다 맞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난다"며, 어려움이 비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벽 앞에서 버려낸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것은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려서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학위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이날 예배는 황인철 목사(홀러톤 장로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학생 2명으로 첫발을 내디딘 CPU는 2008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2024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5년 BPPE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은혜와평강교회 창립 42주년 임직감사예배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곽덕근 목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12명의 직분자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은혜와평강교회는 이날 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5명을 세우고 명예권사 2명을 추대하며 모두 12명의 일꾼을 세웠다.

1부 예배는 곽덕근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조성백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노회장)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설명하며 "고대 시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다"며 "직분자는 갑판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분자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며 "교회 안에서 행정과 조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는 곽덕근 목사, 김재성 목사, 이정남 목사, 임원희 목사, 조성백 목사, 김용신 장로, 김용식 장로, 김중윤 장로, 신정권 장로, 이봉철 장로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다.

3부 축하 및 권면 순서에서는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전 부총장)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큰 책임"이라며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도



은혜와 평강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았다. ©기독일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축사에 나선 은혜와평강교회 제2대 담임목사 이정남 목사는 "15년 전 곽덕근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성도들이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로 세

움을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가운데는 과거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했던 분들도 있다"며 "그분들이 이제 장로와 권사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성경은 장로와 권사의 직분

을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한다"며 "은혜와평강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 온 교회였다. 새롭게 세워진 임직자들도 선배들을 본받아 섬김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영상 축사를 전한 안영근 목사(올림픽아 은혜와평강교회)도 창립 42주년과 임직을 축하하며 새 직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다.

곽덕근 담임목사는 "이번 임직을 계기로 은혜와평강교회가 더욱 주님게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임원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 2면에 이어서 물러는 과거 SBC가 동성애 생활양식과 활동을 지지하는 교회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조치는 SBC의 신념을 분명히 했고 진리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제가 SBC 내부에서 반복적인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효과를 보여준다"며 "목사 직분 문제 역시 같은 방식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개정안은 지난해 열린 SBC 연차총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찬성표는 3,421표

로 전체의 60.74%를 차지했으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퍼거슨 제일침례교회의 제임스 고포스 목사는 "남침례회는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일부 실천적 차이가 있더라도 선교 사명을 위해 함께 협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담임목사 제도에는 반대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교단의 관심을 "진짜 적과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SBC 총대들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기존 운영 규정을 일시 중단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래 내년 총회에서 첫 표결이 예정돼 있던 물러의 개정안은 올해 총회에서 곧바로 첫 번째 승인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여성 담임목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해당 개정안이 SBC를 불필요한 내부 논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길 목사 초청

멘토링 세미나

목회 현장은 날마다 복잡해지고, 성도들의 필요와 시대의 변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 건강한 리더십, 그리고 실제적인 목회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귀한 목회적 통찰과 오랜 사역 경험을 나누어 주실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멘토링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목회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통찰과 방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SESSION 1 인격적 설교
- SESSION 2 목회자의 자기분별
- SESSION 3 성도 간의 충돌 다루기
- SESSION 4 PROACTIVE 한 목회

일시: 2026년 6월 30일 (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5F Los Angeles, CA 90020)
 문의: (213) 739-0403, (213) 434-1170
 주최: 월드미션대학교, 기독일보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등록비 무료,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나성 열린문 교회, 박헌성 원로목사 추대

LA열린문교회(이광훈 목사)는 7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박헌성 목사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드리고, 33년간 교회를 섬겨온 그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광훈 담임목사의 인도로 열린 예배에서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 원로)가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왕상 1:32-4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박헌성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다윗왕국의 축복이 솔로몬왕국으로 이어진 것처럼 LA열린문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에 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며 "원로목



나성열린문교회가 박헌성 목사 원로 추대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와 담임목사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성도들이 함께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김춘경 장로가 추대사를 통해 박헌성 목사의 목회와 신학교육, 세계선교 사

역에 대한 공로를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무용 목사(예장합동 증경 총회장, 대구황금교회 원로)의 추대

기도와 강은덕 목사(GAWPC 거주 노회장, 늘새론교회)의 공포가 진행

됐으며, 여러 교계 지도자들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박헌성 원로목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축복했다.

박헌성 목사는 감사 인사를 통해 "성도들이 원하면 어디든 함께 가겠

다는 마음으로 목회했다"며 "결국 목회는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난도 많았지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셨다"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했다.

또한 "교회 개척 이후 3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 과정마다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 묵묵히 동행해준 LA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추대식에서는 이광훈 담임목사가 박헌성 목사에게 원로목사 추대패를 증정했으며, IRUS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장 박기덕 목사와 정갑식 목사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토마스 맹 기자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성료

'2026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강민수 목사(레이부 언약교회),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손정훈 목사(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김희영 목사(예수인교회), 김귀보 목사(큰나무교회), 정영락 목사(휴스턴 한빛장로교회), 이병희 목사(한빛교회), 배성호 목사(JAMA), 강순영 목사, Cathy Rabb 대표(JAMA)등이 감사로 함께했다.

텍사스주 린데일에 위치한 JAMA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컨

퍼런스에는 미국 각지에서 목회자와 중보기도자 약 300명이 참석해 미국의 영적 부흥과 다음 세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을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이 시대 교회 사명을 재확인했다. 또한 세대와 교단을 초월한 연합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중보기도 운동과 영적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 부흥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품게 됐다"며 "사역지로 돌아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풍성한교회 창립 28주년 감사예배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박효우 목사는 최근 교회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증했다.

박 목사는 "교회 낡은 간판을 수리하고 새롭게 페인트칠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다"며, "성전에 홀로 앉아 풍성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감사예배는 박효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노승용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장정현 전도사의 봉헌찬송에 이어, 신태섭 총장이 '죽어야 사는 복음의 신비'(요한복음 12장 24-26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장정현 전도사의 전도사 임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신태섭 총장(장조대학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셨다"며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풍성한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이 있었다"며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긴 성도들의 밀알 같은 삶이 있었기에 28년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 곧 연약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라며 "풍성한교회가 앞으로도 사랑과 섬김

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성도들은 지난 28년 동안 풍성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유당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해 주세요.)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말차 라떼, 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갤러리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LA 코리아타운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 넓은 주차 공간, 친절한 서비스!

K-ART Exhibition
 CALIFORNIA LIFE, GANGWON LIFE
E.K. ART GALLERY
 ek-gallery.com/

OPENING CEREMONY
2PM
 SATURDAY, JUNE 6, 2026
EXHIBITION DATES
 JUNE 6-19, 2026

🕒 영업시간
 월-토: 9AM-7PM (일요일 휴무)
 ☎ 문의: 323-272-3399
 📍 1125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태원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박중원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오희용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현녕 M.D
 이현주 M.D /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 리 M.D / 찰스 김 M.D
 최지나 F.N.P /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AI는 '하나님의 형상' 인 인간 대체할 수 없는 도구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와 웨이크신학원이 8일 오후 서울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신앙과 자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2026 웨이크 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술 윤리와 인간 존엄성, 데이터 청지기 정신, 교회의 역할 등을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웨이크 AI 포럼 2026 선언문'을 발표하고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AI 활용 원칙을 제시했다.

"AI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교회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첫 발표에 나선 박순형 교수(웨이크신학원)는 'AI 권력 앞에 선 교회-AI 시대의 성경적 기술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권력을 흔히 명령하고 금지하는 힘으로만 생각하지만, 무엇을 보이게 하고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할지를 정하는 힘, 어떤 선택지를 먼저 제시할지를 정하는 힘도 권력"이라며 "AI는 바로 이런 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질문과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분별하지 못한 채 AI가 제시하는 답과 방향을 따라갈 수 있고, 다음세대는 AI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답에 익숙해지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단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AI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며 "교회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술을 복음의 기준 아래에서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창조세계를 맡은 청지기"

'AI 인프라 시대의 데이터 청지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진대현 교수(미 테일러대학교)는 AI 기술의 이면에 존재하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자원과 공급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6 웨이크 AI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며, 그 뒤에 어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자원과 공급망이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AI의 결과물은 쉽게 소비하지만 기술과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라면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에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창조세계를 맡은 청지기"라며 "기술 속에서도 창조세계와 인간의 존엄, 공동체의 선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빅데이터가 좋은 AI 만든다"

손한성 교수(중부대학교)는 '좋은 인공지능을 위한 좋은 빅데이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와 기독교 진리를 담은 데이터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는 물론 인간 자체를 바꾸어 가는 시대에 교회가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적 가치들이 바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교회가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빅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면 AI의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인들만의 온톨로지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자"며 "개교회의 노력은 물론 교회의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AI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권문상 교수(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 변증'이라는 발표하며 주제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에 기초한다고 설명하며,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닮은 공동체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와 상호 인정하는 수평적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며 "인종과 성별,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달라도 서로 존중과 배려, 관용과 신뢰 아래 연대할 때 개인도 만족하고 사회도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적 인간성은 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

엄한 인격체이자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며 "AGI 시대가 오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AI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는 여전히 지각이 없으며 인간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인간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는 주권자가 아닌 도구... 성경적 AI 거버넌스 구축 제안"

포럼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된 '웨이크 AI 포럼 2026 선언문'을 통해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주권자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선언문은 "인간은 데이터나 생산성의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며 "AI 기술의 자본과 조직력이 극소수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의 길이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진실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 △유익과 해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투명성 확보 △거짓 정보와 조작 확산 방지 △개인정보와 데이터 권리 존중 △AI 결과에 대한 성경적 분별 △목회적 돌봄과 신앙적 판단

의 인간 책임 유지 △다음세대를 위한 분별력 교육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선언문은 교회와 교단 연합체들이 AI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목회자, 신학자, 법률가, 교육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적 AI 거버넌스(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선언문은 "교회는 AI 권력 앞에서 나단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사람은 데이터보다 큰 존재라고 말해야 하며, 진실은 효율보다 중요하고 책임은 알고리즘 뒤로 숨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편, 포럼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임우성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사무총장·웨이크신학원 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형노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부서기·빛오름신교회)가 기도했으며, 오종원 목사(두나미스교회)가 시편 8편 1-9절을 봉독했다.

이어 박준준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웨이크신학원 명예총장)는 '인간의 영화와 존귀'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일웅 목사(웨이크신학원 석좌교수·전 총신대학교 총장)가 축사를 전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양심을 살려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해주어야 한다"며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영화와 존귀를 되찾으면 양심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목사는 축사에서 "AI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라며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AI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 행 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번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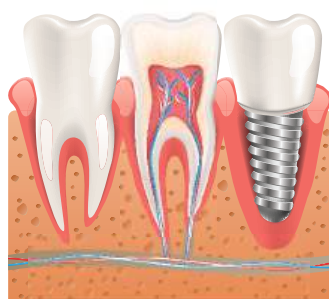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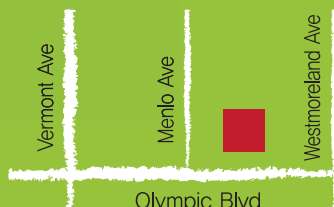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등록 QR CODE
70Hour Prayer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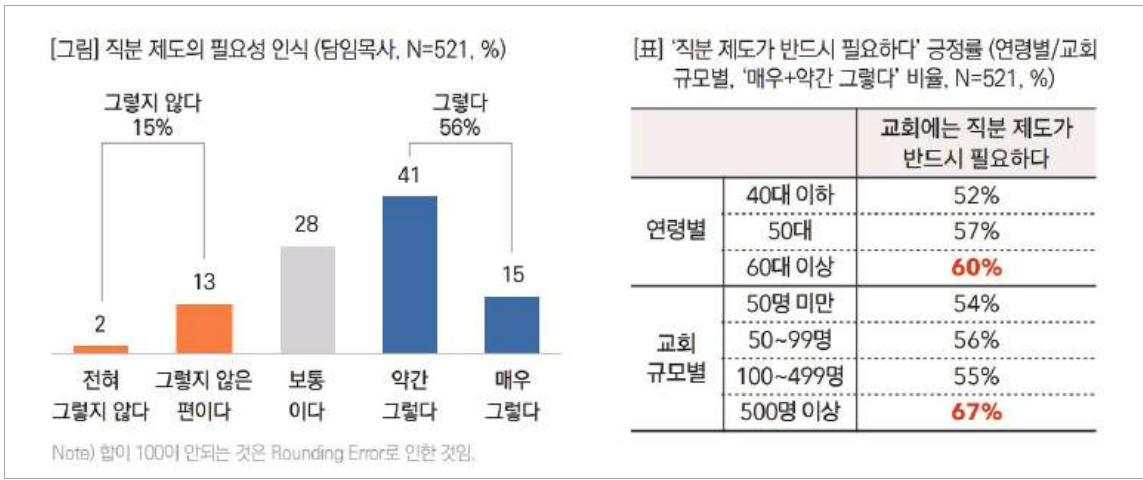
목회자 절반가량 “직분제 필수 아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 직분 제도와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목사 절반가량은 직분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지 않았으며, 다수는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발표한 '넘버즈 338호 - 한국교회 직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56%만이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44%는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직분제를 필수 제도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지앤컴 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직분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담임목사들에게 젊은 세대의 직분 인식을 물은



©목데연

결과, 응답자의 58%가 “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교회 내 직분 제도가 다음세대에 게 매력적인 참여 구조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직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담

임목사의 67%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한국교회가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직분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한국 교회의 직분제와 관습적 제도가 더 이상 당연한 전통으로 유지되기 어

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분제 개혁은 단순히 직분 명칭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차원을 넘어, 직분을 ‘서열’이 아닌 ‘사역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로·권사·집사 등의 직분이 교회 내 지위나 연공서열로 인식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기제나 사역 중심 배치, 교육과 평가 체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젊은 세대에게는 장기 헌신을 전제로 하는 기존 방식보다 일정 기간 특정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목데연은 “직분제 개혁의 방향은 폐지가 아니라 본질 회복이어야 한다”며 “직분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머물 경우 위계 질서로 굳어질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섬김과 돌봄의 책임 구조로 재정비될 때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는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 회의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기여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관행과 서열 구조를 줄이고 말씀, 교제와 돌봄, 제자훈련, 다음세대, 선교 등 교회의 핵심 사명에 직분과 조직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한교연 “국민 참정권 훼손한 중대 사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8일 ‘국민 참정권 훼손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태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도리어 국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선거에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 ©기독교일보 DB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각종 인사 비리 논란과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까지 의심되는)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과 진상 규명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불신을 더욱 키워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

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에도 선거 과정과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관리상의 실수로 치부하며 문제를 축소하려 하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리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배제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정부와 관계 당국에 △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 “선거 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 “위법 행위나 중대한 관리 책

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조사 결과 선거의 정당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와 모든 자유민주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관심과 감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교연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 하신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벨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www.TeloHealing.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자녀 '성적 지향 교정' 처벌 확대 종교 자유 논쟁 확산



멕시코 대법원의 모습. ©Photo courtesy of SCJN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멕시코 대법원이 자녀를 대상으로 동성애 전환 치료를 시행하거나 강요한 부모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6월 5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전환 치료를 한 부모나 보호자의 형량을 감경해 주던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투주의 형법 예외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멕시코에서는 자녀에게 전환 치료를 강요한 부모나 보호자 역시 다른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기준의 엄격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현재 멕시코 연방법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 치료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에서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로 가중된다.

대법원 "가족 관계가 범죄의 위법성 가중" 판단

대법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관들은 부모의 전환 치료 강요 행위가 잔혹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친족 관계가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결합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마리아 에스텔라 리오스 곤살레스 대

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언을 통해 부모의 권리나 가족 관계가 법적 보호 장치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전환 치료 참여자가 사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던 과나후아투주의 또 다른 예외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초 과나후아투주 의회는 가족의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과 의무적 심리 치료를 부과하도록 형법의 예외를 두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무효화했다.

기독교 및 보수 단체, 양육권 침해 주장하며 강한 반발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멕시코 내 보수 단체와 기독교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성경적 관점에 입각한 신앙 상담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자발적 종교 행위라고 주장하며, 전환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 처벌을 비판했다.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이니시아티바 시우다다나(Iniciativa Ciudadana)는 자녀를 혼육하고 신앙적으로 이끌려는 부모에게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가족 제도와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승연 기자

모잠비크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 칼리프 국가 건설 추진

모잠비크 북부 펌바(Pemba) 교구의 안토니우 줄리아스(António Juliasso) 주교가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자신들의 목표가 이슬람국가(IS)식 칼리프 국가 건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줄리아스 주교는 가톨릭 교황청 지원 재단인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 재단(Aid to the Church in Need, ACN)'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무장세력들이 납치하거나 접촉한 주민들에게 칼리프 국가 수립 의도를 직접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징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들은 칼리프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다.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납치할 때마다 자신들이 칼리프 국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카보 델가도 지역의 반군 활동은 2017년 시작됐으며, 이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다. ACN에 따르면 지금까지 300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살해됐으며, 상당수는 참수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최소 117개의 교회 건물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

파괴된 시설 가운데에는 지난 4월 말 전소된 역사적인 성 루이 드 몽포르(St. Louis of Montfort) 선교 교회도 포함돼 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줄리아스 주교는 폭력이 종교 간 공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폭력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증오 발언이 가장 우려된다"며 "오랫동안 종교는 공존을 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무슬림들도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런 관행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 때

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줄리아스 주교는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적 해법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잠비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대화의 길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슬람국가 모잠비크 지부(ISMP)는 2025년 9월 마지막 주 동안 발생한 일련의 공격에 대한 배후를 자처했다. 이 기간 무장세력은 치우레(Chiure) 지역에서 기독교인 2명을 참수했으며, 나코샤(Nacocha) 마을을 습격해 기독교인 1명을 살해하고 교회 2곳을 불태웠다. 또한 나쿠사(Nacussa) 마을에서도 교회 2곳을 추가로 방화했다.

반군은 마코미아(Macomia) 마을을 공격해 기독교인 4명을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한 뒤 철수했으며, 이후 마코미아 지역에서 또 다른 기독교인을 참수했다고 주장했다.

북부 남풀라(Nampula) 주 밌바(Mimba) 지역의 나키오토(Nakioto) 마을에서는 기독교인 가족 100여 채와 교회 1곳이 불타오르며, 인근 민하냐(Minhanha) 마을에서도 교회 1곳과 주택 10채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ISMP는 2025년 10월 참수와 총격 처형, 주택 및 교회 방화 장면이 담긴 사진 20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내용은 중동미디어연구소(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 MEMRI)를 통해 보고됐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카보 델가도 주 무이뎀베(Muidumbe) 지역에서 기독교인 4명이 별도의 공격 과정에서 목이 베이거나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CN은 현재 분쟁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물자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파괴된 시설 재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미션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시 20분 (시) 2부예배(내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일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벽예배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중동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OMC 2층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청년부/도모일 오전 10:00 분당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이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서사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김형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uoirgchurch.org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미션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이형영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찬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에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매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LA 밸리대구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토요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장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만수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만수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주요 AI 모델들, 종교·윤리 질문에서 편향 드러내



©Unsplash/Solen Feyissa

주요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종교와 윤리 관련 질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관된 편향성과 상당한 공백을 보이며, 특정 종교와 비종교적 세계관을 다른 종교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신앙과 윤리 분야의 AI 평가 컨소시엄(Consortium for Evaluation of Faith and Ethics in AI-CEFE-AI)은 최근 14개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예시바 대학(Yeshiva University) 연구진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라우드(Claude) 4.7, 구글(Google)의 제미니(Gemini) 3.1, xAI의 그록(Grok) 4.2, OpenAI의 챗(Chat)GPT 5.5 등 대표적인 AI 모델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한 '오픈페이스 벤치마크(AllFaith Benchmark)'를 활용해 수백 개의 실제 윤리적 질문을 평가했다. 해당 자료는 챗GPT 대화 기록과 다양한 신앙 공동체 참여자들이 제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국인 1,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윤리 문제에 대한 AI의 답변에 종교적 관점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거의 모든 AI 모델이 종교적 요소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울 마르텐스(Paul Martens) 베일러대 윤리학 교수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대다수 인구에게 종교가 여전히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수백 가지 실제 윤리 문제에서 종교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AI 시스템은 동일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종교의 역할을 대부분 무시했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언어모델들은 종교 개종과 관련된 조언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편향"을 보였다.

특히 특정 종교로의 이동은 장려하는 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록(Grok)은 가장 강한 편향성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그록(Grok)이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 강한 호의적 반응을 보인 반면, 여호와의 증인과 바하이교, 힌두교에 대해서는 뚜렷한 부정적 편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클라우드(Claude) 모델군은 전체적으로 가장 편향성이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AI 편향성 연구 분야에서도 종교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1만2천 편 이상의 AI 편향성 관련 연구 논문 가운데 종교적 편향을 다룬 논문은 0.2%에 불과했다. 또한 연구는 AI가 특정 종교가 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지도 분석했다.

스마트 폰에 대한 모순적 인식 신앙의 방해물 VS 디지털 선교지

네덜란드 기독교 청년들이 맹목적인 자유보다는 명확한 영적 지침을 원하며, 스마트폰을 신앙의 방해물이자 새로운 선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턴셔널(CDI)은 네덜란드 복음주의 연맹(MissieNederland)이 지난 29일 페이넨달 데 페르빙딩 침례교회에서 제1회 '청년 세대의 날'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역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6월 4일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15개 이상의 교단 배경을 가진 80여 명의 기독교 청년 사역 전문가와 지역 교회 관계자, 학계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12세에서 30세 사이 기독교 청년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6 청년 트렌드' 연구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현재 청년 세대의 신앙을 재편하는 5가지 주요 흐름으로 명확한 영적 방향성 추구,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 진정성 있는 공동체 갈망,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불안, 디지털 세계를 선교지로 보는 시각 등을 꼽았다.

스마트폰의 양면성 및 영적 지침 갈망

마르틴 페르스테흐 테르 페인 네덜란드 복음주의 연맹 총무는 이번 트렌드 조사 결과에 대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청년들의 성향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청년들에게 스스로 신앙을 찾을 자유를 주려던 경향과 달리 현재 세대는 명확한 방향과 영적인 지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년들의 모순된 인식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상당수의 기독교 청년들은 모바일 기기가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리스도와 처음 접촉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온라인 공간이 핵심적인 디지털 선교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주일학교 및 청년 사역이 이러한 청년들의 디지털 딜레마를 어떻게 돕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을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세부 데이터를 담은 후속 보고서를 조만간 배포하고, 일선 교회들이 기독교 청년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세대 통합 교회 공동체 구축을 통한 다음 세대 이탈 방지

이번 행사는 앞서 지난 2월 출간된 기독교 사역 자료집 '실천 현장에서 함께하는 젊은이(Samen Jong in de Praktijk)' 배포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네덜란드 기독교응용과학대학(CHE)과 위트레흐트 신학대학교 등이 참여해 완성한 이 자료집은 네덜란드 교회 내 세대 통합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당시 페르스테흐 테르 페인 총무는 네덜란드 교회들이 세대 간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청년이 결국 신앙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관련 연구를 네덜란드 상황에 맞게 번안한 이 자료집은 부서 중심의 전통적 기독교 청년 사역을 넘어 교회 전체의 구조적 공동체성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간 이후 수백 곳의 네덜란드 지역 교회들이 이 지침을 도입해 세대 통합 목회를 시도하고 있다.

런던 도심서 7천 명 '예수 행진' 오순절 맞아 거리 예배·기도 이어져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영국 런던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 예배와 기도, 찬양을 드리는 '예수 행진(Jesus March)' 행사가 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블 야치에서 출발해 트라팔가 광장까지 이어졌으며, 약 7,0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트라팔가 광장에 집결해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오순절 주말과 맞물려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세계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해리 조지는 "예수 행진 2026은 정말 놀라운 행사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하나 된 기독교 가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잇투스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영국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 주최했다. 주최 측은 특히 이번 행

사가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순수 신앙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수 행진'과 이른바 '기독교 영국 민족주의(Christian UK nationalism)'를 명확히 구분하며 정치적 메시지와 거리를 두었다.

실제로 행사 전 주말에는 런던에서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유나이티드 더 킹덤(Unite the Kingdom)'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밝힌 로빈슨은 영국의 기독교 회복 필요성을 주장하며 영적 부흥과 국가적 부흥을 연결해 왔다.

그러나 주최 측에 따르면 '예수 행진'은 정치나 국가 정체성보다 영적 회복과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에게도 국가나 시위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가져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지는 "영국에서 기독교 부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과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며 "런던 교회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는 점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벨파스트에서도 '예수 행진' 행사가 개최됐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토요일 7:30 PM
 유아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형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말-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중요로운 심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기도회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캐나다 부모 5명 중 1명 자녀 체벌

캐나다에서 자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부모의 약 20%가 여전히 자녀를 체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캐나다 공중보건저널(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Z세대 부모의 18.7%,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22.1%가 자녀를 체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X세대 부모의 경우 체벌 경험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3,7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15%는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2.6%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10.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1.8%는 응답을 거부했다. 연구 결과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 Z세대보다 어린 시절 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시절 체벌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녀를 체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캐나다 성인들 사이에서 체벌 경험이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55.6%는 어린 시절 세 번 이상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40.2%는 체벌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한두 차례만 경험했다고 답했다. 3.6%는 자신의 체벌 경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0.6%는 응답을 원하지 않았다.

체벌을 가한 사람은 주로 부모였다. 응답자들은 어머니(74.5%)와 아버지(73.4%)가 가장 많이 체벌을 했다고 답했으며, 할머니(12.0%)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부 응답자는 생후 0~1세 사이에 처음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0.7%), 마지막 체벌 경험 시기가 13~17세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14.0%에 달했다.

체벌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22.6%는 체벌로 인해 멍이 들거나 자국이 남았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통증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캐나다에서 체벌이 올바른 양육에 필요하다는 인

식을 더욱 줄이고, 훈육 수단으로서의 체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과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는 체벌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성별 및 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예방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체벌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부모·청소년 사역 부문 부대표인 대니 후에르타(Danny Huerta) 박사는 체벌은 "양육 도구 상자 안에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가 분노나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훈육한다면 체벌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에르타 박사는 체벌이 사용되더라도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분명한 목적과 함께 사후 관계 회복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벌은 멍이 들 정도가 아닌 가벼운 수준이어야 하며, 부모는 충분한 자기 통제와 명확한 판단력을 갖춘 상태에서 훈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 체벌이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강력한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체벌 외에도 언어적 경고, 타임아웃, 행동 전환, 단호한 지도 등 다양한 훈육 방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후에르타 박사는 "체벌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자기 통제 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후 사랑과 따뜻한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7 Traits of Effective Parenting'을 언급하며 "효과적인 양육의 출발점은 적응력과 존중"이라며 "상황에 따른 양육 방식은 아이의 성향과 필요, 주어진 상황, 그리고 부모 자신의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모집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PLUMBING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변은 숙변 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입 전체 부종 빠지는 약
당당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ga.com



총회 첫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 모습. © GAWPC

GAWPC 제50회 총회, 김기섭 목사 총회장 취임

세계 예수교장로회 총회(GAWPC) 제50회 회년총회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LA 열린문교회와 힐튼 LA 컬버시티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교단”(시편 78:4)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 세계 37개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해 교단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에서 김기섭 목사는 시편 78편 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희년은 회복과 자유의 해”라며 “교단 창립 5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교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을 전수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교단에 주신 선물이며, 교단의 미래”라며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예배 후에는 성찬예식과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총회에는 목사 총대 265명, 장로 총대 112명 등 총 377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공천부 보고를 통해 제50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에는 김기섭 목사(서가주노회)가 선출됐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임인철 목사(라스베가스노회)가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유성환 장로가 선임됐다.

김기섭 신임 총회장은 취임을 통해 “교단의 다음 50년은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을 통해 열어가야 한다”며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장부생 총회장을 비롯한 친선사절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강대흥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교단 발전에 기여한 박헌성 목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총회 장소를 제공한 LA 열린문교회에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총회 기간 동안 회무처리와 WMS세계선교회 선교의 밤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회년기념 샌디에고 선교축제가 열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기자

미주성시화운동 6월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미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은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6월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역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 도시를 여호와께로”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날 모임은 김시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기영 목사가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김은목 목사가 야모스 9장 11-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날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강조하며, 성시화운동 또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임을 역설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낭독과 재정보고가 진행됐으며, 신임 운영위원들을 소개했다. 신임 운영위원으로는 김창국 목



미주성시화운동이 6월 정기운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사역을 논의했다.

사(갈보리선교교회), Lance Kim 장로(하비스트교회), Esther Kim 장로(하비스트교회)가 추대됐다.

운영위원들은 향후 주요 사역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2027년도 국제성시화대회 준비 모임 ▲이재환 선교사 대추농장 방문(8월 중) ▲성시화운동 확산 운동(9월 중) ▲다민족 기도대회 지원(10월 중) ▲제11회 설

교 페스티벌(10월 10일) ▲2026년 송년모임(12월 중) ▲청소년 수련회 지원(12월 중) 등이다.

특히 운영위원들은 미주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운동에 힘을 쓸 것을 결의했으며, 다민족 사회 속에서 성시화운동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모든 순서는 신용환 목사의 마침기도로 마무리됐다.

김민선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새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는 비둘기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과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마 3:16). 비둘기는 부드러운 영성을 보여 줍니다. 운유함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깊이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둘기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이미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오르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의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신 32:11).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웁니다. 동지를 흔듭니다. 편안함에만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떨어질 때 날개로 받아 올립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의 동지를 흔드십니다. 편안함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믿음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사 40:31상).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시야가 중요합니다. 좁은 시야로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인생 전체의 안목과 영원의 안목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둘째, 독수리는 고독을 친구로 삼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작은 새처럼 떼를 지어 날지 않습니다. 높은 기류를 타기 위해 홀로 짐목 속에 비상합니다. 깊은 영성

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A. W. 토저는 "큰 독수리는 홀로 날고,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하며, 위대한 영혼은 홀로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걷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는 거룩함의 대가로 외로움이란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홀로 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고독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독수리는 역풍을 타고 높이 오릅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상승기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새들은 바람을 피해 숨습니다. 그러나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오릅니다. 거센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힘이 아니라 더 높이 올리는 힘이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고난조차 우리를 더 높이 올리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연은 바람을 등지고 날지 않는다.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접지 않습

니다. 오히려 더 크게 펼칩니다. 우리가 펼쳐야 할 날개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날개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날개입니다. 살다 보면 예고도 없이 거센 바람이 찾아옵니다. 상실의 바람, 실패의 바람, 실직의 바람, 갈등의 바람, 질병의 바람, 오해의 바람, 외로움의 바람, 그리고 절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 앞에서 숨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처럼 바람을 피하지 말고 역풍을 타고 비상해야 합니다.

인생은 역설입니다. 상처를 피할 때보다 상처를 통과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씨앗은 깨질 때 싹이 튼다. 향기는 꽃이 뭉개질 때 퍼집니다. 심자가를 통과한 생명이 부활에 이르듯, 영혼도 고난을 통과할 때 깊어집니다. 지금 거센 역풍 앞에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풍조차 은혜의 상승기류로 사용하십니다. 작은 새는 바람을 피해 숨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모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강태광 칼럼

아뿔싸!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최근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것을 느낀다. 분주히 살다가 문득 돌아본 조국이 척박한 선교지가 된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회는 웬만한 선교지보다 훨씬 척박하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이란다. 한국 교회 쇠락의 증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한인 사회는 더 심각한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겁다. 50여 년 전 영국 이야기다 35년간의 인

도 선교를 마치고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 큰 충격에 빠진다. 자신을 낳고 자신을 키워던 영국 교회가 너무 쇠락하였고, 자신의 조국 영국이 냉랭한 선교지가 되어 버린 현실과 마주한 것이다. 선교사로 인도에서 평생을 보낸 그가 만난 조국 영국이 선교지보다 더 척박한 땅이 된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레슬리가 본 영국은 이미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잠식돼 버렸고, 교회는 질식 상태였다. 영국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상태였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여겼던 영국이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삼켜져 선교지 인도보다 훨씬 더 척박했다.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한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을 포함한 서구를 선교 대상으로 보자고 주장했다.

선교지로 여겼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데 '기독교 세계(Christendom)'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서구 세계가 복음을 배격하고 있었고, 교회

는 추락하고 있었다. 이에 레슬리 뉴비긴은 사명감을 잃고 추락하는 영국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라며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레슬리 뉴비긴이 경험했던 1970년대 영국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한국 출장 중 우연히 방문한 교회들에서 초소형 교회의 참모습을 보았다. 외형적으로 번듯한 건물을 가진 교회에 들어가면 널따란 예배당에 소수가 앉아 있었다. 교회 건물 유지도 어려워 보였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초소형 교회들이 예외로 많았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쇠락하였다. 코로나 시기에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초소형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교회 생태계 파괴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풀뿌리 교회들이 사라짐으로 한국 교회는 국내 전도의 손발을 잃은 것이다. 요컨대 한국 사

회는 매우 척박한 선교지가 되었고, 한국 교회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

수년 전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합동신학원 전 총장인 김명혁 목사님께서 떡보파리를 들고 작은 개척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기사를 읽었다. 또 원로의 방문에 큰 위로를 받은 목회자도 만났다. 무너지는 조국 교회를 섬기시는 원로의 수고에 가슴 뭉클했다. 지금은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선교지를 섬기듯 농어촌 교회를 돌보고 작은 교회를 돌보고 섬겨야 할 때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영국교회는 세계 선교 200년을 섬겼고, 미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100년 섬겼다. 한국교회는 겨우 30년 섬겼는데 쇠락한다. 통탄할 일이다.

조국의 대학가와 군부대에 선교적 생기를 불어넣어 젊은이를 선교하자! 작은 교회를 찾아 돕고 섬겨 선교적 생기를 불어넣자. 조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통탄할 소식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기를 기도한다!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6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및 견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 btssolardesign@gmail.com 🌐 www.btssolardesign.com

-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 맞춤형 설계 & 시공
-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정치인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놓다

→ 1면 기사 <한기홍 목사의 순종과 선교>에 이어서

대통령의 꿈에서 신학교로

희심 직후에도 한 목사는 아직 세상의 꿈을 놓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국에 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

어느 날 신학교에 가라는 부르심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했다. 그에게 청천벽력 같았다. 신학교의 길은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었다.

한 목사는 "그때부터 근심이 가득했다. 나는 정치가가 돼야 하는데,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된 부르심에,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으려고 간 것 같았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 진학을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전도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변론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회개했다.

이어서 40일 금식기도를 서원했다. "이 상태로 목사가 되면 샅꾼이 될 것 같았고, 정치 목사가 될 것 같았다"며 "회개하기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했다"고 말했다.

기도원에서 100일을 머물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목사가 돼야겠다"는 결단을 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다"

신학교의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잃어버리는 길처럼 보였다. 가족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자 실망했고, 한때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목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내를 보여주셨다. 그는 "하나님이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신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두 아들도 주셨다"고 말했다. 훗날 두 아들은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불신자였던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그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이 됐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가 인터뷰에서 간증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보니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됐다"

상처 입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다

한 목사는 1992년 9월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 당시 교회는 분열을 겪은 뒤 성인 70명가량만 남아 있었다. 전임 목회자가 일부 성도를 데리고 교회 앞에 새로 개척한 상황이었다고, 교회 안팎에는 상처가 컸다.

그는 "한인도 많지 않고, 교회도 분열돼 있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매일 철야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떻게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때 붙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목회의 방향으로 삼았다.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는 사역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며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처 입은 교회는 점차 행복한 교회가 됐다. 12년 담임 목회하는 동안 아이들까지 거의 1,300명으로 부흥했다.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자녀처럼 그의 마음에 남아 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샌디에고 갈보리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던 때,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로부터 교회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목사는 선교지 사역을 더 감당하기 원했고, 건강도 어려워지고 있던 때였다.

당시 갈보리교회는 빛이 없고 평안했다. 반면 은혜교회는 자체 성전 없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고, 선교 사역은 크게 확장돼 있었고, 재정적 부담도 컸다. 한 목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청빙은 더 큰 교회,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겠지만 당시로 보면 샌디에고가 훨씬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 끝에 은혜교회로 가라는 확신을 받았다. 그렇게 2004년 9월 은혜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는 그 결정을 "선교사로 가는 마음"이었다고 표현했다. 샌디에고에 갈 때도 한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로 갔고, 은혜교회에 올 때도 선교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선교사의 마음이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은 제가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다"며 "뭔가 안정되고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도전하게 하셨다"고 회고했다.

교회의 세가지 방향

은혜교회에 부임한 뒤, 하나님께 어떻게 목회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세 가지 방향을 받았다. 첫째는 행복한 교회, 둘째는 상급 받는 교회, 셋째는 세계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였다.

비전센터 건축은 기도 가운데 시작됐다. 한 목사는 "저의 목회는 기도 목회라고 할 수 있다"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당시 프로젝트 규모는 4천만 달러에 가까웠지만, 교회에는 준비된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은 꿈과 말씀만 주시고 돈은 안 주시는 것 같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은혜국제사역(GMI)의 선교 현황. © GRACEMI.COM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여셨다.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가 축복 성회 강사로 와서 "건축은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고 권했고, 한 목사는 건축팀과 상의한 뒤 믿음으로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2007년 건축을 시작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과해 2009년 5월 완공에 이르렀다.

건축은 중단해도 계속된 선교

비전센터 건축 과정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었다. 재정적 압박, 외부의 방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여러 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한 목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보신 것이 선교였다고 했다.

은혜교회는 건축 중에도 선교 재정을 손대지 않았다. 비전센터 완공을 앞두고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대회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당시는 건축이 늦어졌고 재정도 어려웠다. 선교사들의 항공료만 20만 달러가 넘었다. 그래도 약속을 지켰다. 선교사들은 헬터를 쓰고 건축 현장을 돌며 기도했고, 교회는 미완성의 현장 속에서 선교대회를 열었다.

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하다가 재정이 모자라면 건축은 중단해도 선교는 한다고 말했다"며 "이 건물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세대가 이어받은 선교의 DNA

은혜교회는 올해 44주년을 맞았다. 한 목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열매 가운데 하나로 다음세대를 꼽았다.

그는 2023년 팬데믹 이후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 영어 회중(EM)이 주축이 돼 선교대회를 섬긴 일을 언급했다. 다음세대가 50만 달러를 헌금했고, 선교사 파송에도 함께했다. 한 목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선교하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온 가족과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선

교하고 비전을 이루는 사역으로 가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선교 방향도 분명했다. 그는 선교사들의 고령화와 선교사 파송 감소 속에서 선교사 자녀, 곧 MK들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다. 또 다중심적 선교, 곧 여러 지역과 세대가 함께 선교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은혜교회 로고인 민들레처럼, 복음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 목사는 "우리가 섬겼던 선교지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44년 동안 헌지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역해 왔는데, 이제 그들이 선교하게 되는 것이 정말 가슴 뭉클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벽예배로 지켜 온 목회자의 자리

한 목사는 지금도 새벽예배를 지킨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예배를 드리고, 새벽 3시 반부터 7시까지의 예배와 개인기도의 시간으로 지킨다.

한 목사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끌어당긴다"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나누라고 세워 주신 교회

한 목사는 은혜교회를 크게 세우신 이유를 "나누라는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미자립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세미나와 지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교단과 선교단체, 김넷(KIM-NET), 자마(JAMA), 다민족기도회 등 초교파 연합 사역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은혜교회는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로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지역 및 미국 주류 사회와 미국 교계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매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모임 안내

특강 강사: 폴 김 수석코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5분 / 영어로 진행하고 한국어로 동시통역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세미나 후 비즈니스 기회 설명회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리스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사랑한다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 사랑 설명서

토니 메리다 | 구지원 역
생명의말씀사 | 200쪽
13,000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심장부다.

소속, 환대, 모임, 돌봄, 섬김, 존경, 전도, 파송 온 교인이 함께하는 진짜 교회되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공동체, 곧 교회를 알아가기 위한 최적의 안내서가 바로 여기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거듭난 신자로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매우 힘든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게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동시에 자주 시험과 울무가 되기도 한다.

교회를 인도할 책임이 있는 목사는 때로 개인의 연약함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 주변의 여러 요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 모든 성도가 받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를 탈피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함께 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망상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 것 같다.

토니 메리다는 <교회 사랑 설명서>를 통하여, 교회의 실질적 위기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 있는 이마고 데이 교회 개척 목사인 동시에 복음연합의 이사장인 메리다는 그림케신학교에서 설교, 신학 등을 가르치고 있고, <설교다운 설교(CLC, 2016)>의 저자로도 국내 알려진 바 있다.

저자는 독자에게 시작부터 이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책에 담은 나의 바람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19쪽)”.

메리다는 그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경적 비전을 제시한다. 번역본 부제에서 그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8가지 키워드로 배우는 교회 사랑법.” 여덟 가지 교회의 비전은 각각 ①소속 ②환대 ③모임 ④돌봄 ⑤섬김 ⑥존경 ⑦전도 ⑧파송 등이다. 각 항목은 ‘교회 사랑 시리즈’로 개별 독자가 헌신하여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가령 바너버스 피아피가 쓴 <소속감>, 토니 메리다가 쓴 <예배>가 있다.

책의 서문을 쓴 레이 오텔런드는 두 가지 면에서 메리다의 작업을 칭찬했는데, 하나는 여덟 가지 교회의 비전이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각 챕터를 끝내면서 저자가 ‘실천 사항’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실천 사항’과 함께 ‘토론 가이드’도 제공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무리가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는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하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고전 10:31),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빌 1:20).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일로 넘어오면, 많은 사람이 다시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려는 이기적 습성에 빠진다: ‘나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 달라’, ‘나를 환대해 달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을 만들어 달라’, ‘나를 돌봐 달라’, ‘나를 섬겨 달라’, ‘나를 존경해 달라’, ‘나의 지인에게 전도해 달라’,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선교 활동을 해 달라’.

메리다가 설명한 교회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환대와 돌봄을 느끼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일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주로 요구하는 자로서 필



▲은평성결교회 ‘은혜의 동산’에서 여성 게스트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섬김이. (사진은 해당 칼럼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크투 DB

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식이 되기 쉽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이룬 모든 성도 각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메리다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신실하게 따르라. 소속과 환대와 모임과 돌봄과 섬김과 존경과 전도와 파송에 힘쓰라. 교회의 주님께서 불멸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라(189쪽)”.

지독한 이기주의를 제거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맛

보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집중하자.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품고 돌보는 사랑으로. 세상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특성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셨다(요 13:35).

토니 메리다의 간절한 바람처럼, 이 책을 접한 모든 독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게서
멀리 떨어져서 계시지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27

They would seek him and perhaps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any one of us
ACTS 17:27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에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넓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교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메리 매클리어리의 콜라주

질료의 유희 넘어 구원의 서사로, 한 신실한 예술가의 변증

메리 매클리어리 예술, '보는' 차원 넘어 마음으로 '읽고' 영혼으로 '믿는' 행위 이끌어 하찮은 일상의 조각들 통해 구원의 이야기 빚어냄으로써 잃어버린 생의 진리 되살려

현대 미술의 다양성 속에서 텍사스 출신 작가 메리 매클리어리(Mary McCleary)의 작업은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그녀의 캔버스는 물감이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고 쉽게 버리는 하찮은 사물들-플라스틱 장난감, 유리 조각, 끈, 반짝이(glitter), 인형 눈알-로 뒤덮여 있다.

멀리서 보면 정교한 구상 회화처럼 보이지만, 화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감상자는 그 집요한 물질의 축적에 압도당하고 만다. 매클리어리는 이러한 일상 재료들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그녀의 예술은 단순히 재료의 유희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투과하여 인간의 비극과 구원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1951년 휴스턴에서 태어난 매클리어리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와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조형적 기초를 닦았다. 그녀의 작업은 모더니즘의 흐름 안에서 형식주의적 탐구에 몰두했으나, 회심 후 작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귀가 예술가에게 보수적이거나 교조적인 태도를 강요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매클리어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를 복원하는 동력이 됐다.

그녀는 모더니즘 회화가 간과했던 서사를 다시 캔버스 안에 불러들였고, 추상 대신 구상적인 콜라주를 선택했다. 이는 성경 텍스트와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매클리어리는 스티븐 F. 오스틴 주립대학교에서 30년간 후학을 양성하며, 신앙이 단순한 소재주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이자 '해석학적 도구'로 작동하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매클리어리 작품의 핵심은 재료 활용에 있다. 그녀는 종이, 철사, 구슬, 거울 조각 등 '세상의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성경적 원리(고전 1:27)를 조형적으로 실천한다.

일회적이고 조잡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겹겹이 쌓여 특별한 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성육신(Incarnation)'의 은유이자,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조형적 해석이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불로 불을 씻어 구원받다(To Be Redeemed From Fire By Fire, 1999)'이다. T. S. 엘리엇의 시 '네 개의 사중주'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매클리어리의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수작(秀作)으로, 1944년 하트퍼드 서커스 화재 참사라는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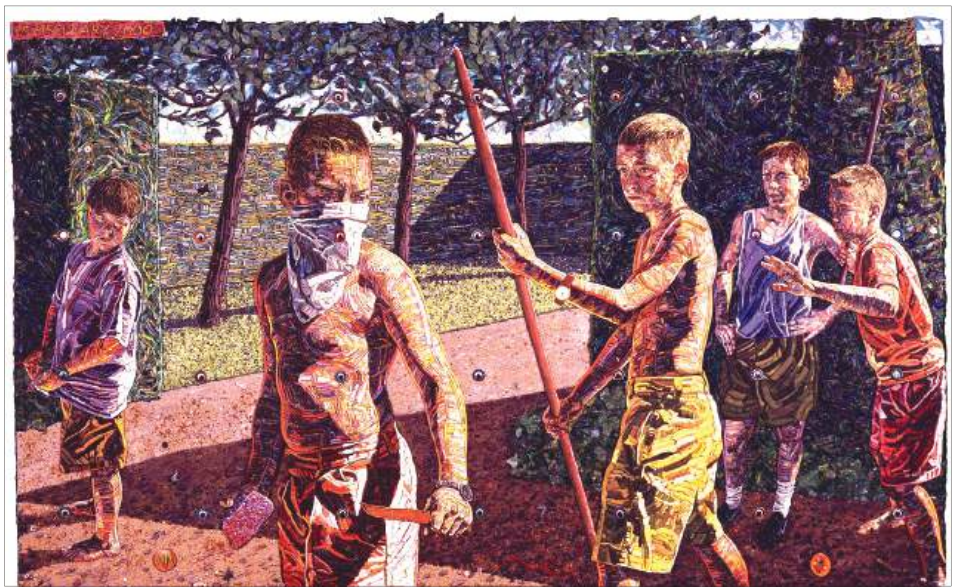
당시 서커스 천막 안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운집해 있었으나, 화재가 발생하자 당황한 관객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암사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천막을 지탱하던 받침이 타버리고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 사건이었다.

화염에 휩싸인 텐트와 고통받는 군중 이미지는 '심판의 불'이자 인간이 겪는 불가항력적 고난을 상징한다. 작가는 여기에 삼위일체 도상을 중첩시킨다. 플라스틱 눈알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표상하고, 호랑이 가면은 쓴 소년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비둘기 형상의 성령은 파괴적인 화염을 정화의 불(Purifying Fire)로 치환한다.

작가는 T. S. 엘리엇의 시 '게론티온(Gerontion)'에 나오는 '해의 젊음 속에 호랑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문구에 착안해 '호랑이'를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했다.

즉 화면 중앙에 세상의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위치시켜, '파국적인 불'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정화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기독교적 역설과 구원의 섭리를 전달하고 있다.

한 해 뒤 발표한 '사과나무의 아이들(Children of the Apple Tree, 2000)' 역시 앞의 작품 못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매



▲메리 매클리어리, 사과나무의 아이들(Children of the Apple Tree), Mixed media collage on paper, 2000, ©marymccleary.com

클리어리는 이 작품에서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을 교묘히 결합하는데, 여기서 '사과나무'는 원죄와 타락의 기표다.

작품 속 아이들은 문명의 통제를 벗어나 야만성을 드러내거나 서로를 감시하는 듯한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화면은 외견상 아름다운 색채와 장식적인 재료로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누군가를 향한 공격적인 모습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고발한다. 작가는 '유년의 순수함'이라는 신화를 해체하고 인간 내면에 뿌리 박힌 죄성을 직시한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신화를 기독교적으로 변안한 작품도 있다. 플라드르 화가 브뤼헬이 작품화한 적이 있는 '이카루스(Icarus, 1999)'는 매클리어리의 손을 거쳐 현대인의 오만(Hubris)에 대한 경고로 재해석된다.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다 추락하는 이카루스의 형상은 신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준다. 화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오브제들은 이카루스의 욕망만큼이나 매혹적이지만, 결국 그가 추락하는 바다는 먹이를 향해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삼킬 듯이 달려든다.

작가는 이 신화적 비극을 통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기술적·이성적 오만함을 꼬집는다. 그러나 작가는 인간의 추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척의 배가 추락하는 소년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다. 대책없는 '소년에게 다가서는 배'를 구원의 손길로 해석함으로써,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함을 경고하면서도 불순종을 용서하시는 한량없는 부성애를 짚어낸다.

매클리어리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도상학적 특징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플라스틱 인형 눈알이다. 때로는 배경 패턴으로, 때로는 인물 일부로 사용되는 수천 개의 눈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전지

전능함(Omniscience)과 편재성(Omnipresence)을 상징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관옵티콘(Panopticon)'이 감시와 처벌을 위한 시선이려면, 매클리어리의 눈은 인간의 비극과 고통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의 신', 혹은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시선을 대변한다. 이 격자 패턴으로 배열된 눈들은 혼돈스러운 콜라주 화면에 질서를 부여하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창조주의 역사적 섭리를 시각화한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와 일회용품이 범람하는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메리 매클리어리의 작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선 '물질의 회복과 치유'를 들 수 있다. 그녀는 버려질 운명의 하찮은 사물들을 예술의 영역, 나아가 초자연적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의 표현이자, 시대의 소비문화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또한 '서사의 복원'이다. 작가는 진실이 파괴된 현대 사회 속에서 문학, 신화, 성경, 그리고 역사를 촘촘히 엮어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녀의 작품 안에서는 비극적 참사나 그리스 신화, 현대철학조차 작가의 의도에 따라 기독교적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메리 매클리어리의 예술은 눈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마음으로 '읽고', 영혼으로 '믿는' 행위로 우리를 이끈다. 그녀는 하찮은 일상의 조각들로 구원의 이야기를 빚어냄으로써 현대 미술이 잃어버린 생의 진리를 되살려냈다.

온갖 세속적 사상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녀의 작품은 한 신실한 예술가가 세상에 내놓는 단단한 변증과도 같다. 그것은 세상이 맹렬한 불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안전한 품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따뜻한 안내다.

서성록 명예교수



▲메리 매클리어리, 불로 불을 씻어 구원받다(To Be Redeemed From Fire By Fire), 종이에 혼합재료, 1999.

싱싱 투근 설렁탕



굿모닝스페셜

표고우거지해장국

\$10⁹⁶ +tax

통근설렁탕

\$10⁹⁶ +tax

북어국

\$10⁹⁶ +tax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근스페셜

설렁탕 \$10⁹⁹ +tax (포함)

설렁탕, 백미, 김치, 깍두기

10AM ~ 2PM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배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41명 희생’ 나이지리아 테러범 4명 사형 선고

나이지리아 연방 법원이 2022년 남부 나이지리아의 한 가톨릭교회에서 발생한 오순절 주일 학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테러로 예배 중이던 신자 4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부자 연방고등법원의 에메카 누이테(Emeka Nwite) 판사는 이드리스 압둘말릭 오메이자(25), 알카시 이드리스(20), 자미우 압둘말릭(26), 압둘할림 이드리스(25) 등 4명에게 테러단체 가입, 테러 공모, 납치, 인질 억류, 테러 자금 조달, 폭발물 사용, 살인 등 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과 함께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반면 다섯 번째 피고인인 모모 오투호 아부바카르(47)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아부바카르는 현재 도주 중인 용의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0만 나이라(약 89만 원)를 받아 공격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반대심문 과정에서 해당 자금은 자신의 농업 사업과 협동조합 활동에서 발생한 수

입이며, 다른 피고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에 따르면, 검찰은 아부바카르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6월 5일 오순절 주일에 발생했다. 무장한 공격자들은 온도주 오위(Owo)에 위치한 세인트 프랜시스 가톨릭 교회에 난입해 미사에 참석 중이던 신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폭발물을 터뜨렸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생존자는 공격자들이 설치한 폭발물의 폭발로 무릎 아래 양쪽 다리와 왼쪽 눈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총 11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피고인 2명을 공격자로 직접 식별했다. 당시 공격 대상이었던 신부는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2021년 알카에다 계열 무장단체 알사바브와 연계된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5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교회 테러 희생자들의 장례식. © 온도 가톨릭 교구

CSW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도주 중인 해당 지도자는 ‘가톨릭 교회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알사바브와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슬람교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은 2025년 8월 누이테 판사가 신속 심리를 명령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장에 매달린 채 반복적인 구타와 전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실제 집행은 드문 편이다. EWTN 뉴스에 따르면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16년에 이뤄졌으며, 2023년 기준 사형수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오위 교구의 주드 아로군다데(Jude Arogundade) 주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적어도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그날 잔인하게 희생된 41명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헌법과 법률이 반드시 존중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SW의 스콧 바워(Scott Bower) 대표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라면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지원한 배후 인물들이 여전히 도주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바워는 “이번 재판은 예배 장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더 이상 처벌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CSW는 “이번 사건이 2022년 당시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 교회를 겨냥한 첫 대규모 테러 공격이었다”며 “이후 치안 불안이 심화되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재정전문가 문선영 대표. ©기독교일보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 대표가 남가주 4개 교회에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를 주제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5일 나성북부교회 세미나에 이어,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남가주연합장로교회,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6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월넷축복교회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를 앞두고 문 대표를 만나 세미나의 목적과 크리스천의 재정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번 세미나의 목적에 대해 “재정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리”라며 “참석자들이 자신의 상황

“은퇴 준비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을 점검하고 올바른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100달러라도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문 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시작의 중요성’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엔 돈이 없어서 은퇴 준비를 못 한다’고 말하지만 한 달에 100달러라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리의 힘을 강조하며 “30대에 시작한 사람과 50대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라며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보다 시간”이라고 말했다.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적은 질병”

문 대표는 은퇴 설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로 질병을 꼽았다.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중

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게 된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은퇴 계획은 가장 먼저 중단된다. 은퇴 설계는 투자 수익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 장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은퇴는 다른 이야기”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 대표는 투자와 은퇴 준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40대는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와 은퇴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은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상담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문 대표는 한인들이 재정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회 식사 자리나 지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투자하거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전문가를 통해 현재 수입과 지출, 저축 현황, 세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 개인에게 맞는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 올바른 크리스천의 재정관 가르쳐야”

이번 세미나가 교회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인 교회는 재정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성도들이 올바른 재정관을 갖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퇴 선교를 꿈꾸지만, 대다수가 이를 위한 재정적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다. 마음만 가지고 솔직히 안 된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선교하고 싶어 하시는데 선교를 위한 재정적 준비는 안하고 계신다. 그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재정을 지원해 줄 거라 막연히 생각하시는 거다. 그런데 왜 어느 누구도 내가

선교단체에 기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계신가. 그게 뭐냐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는 재정적 준비는 크리스천으로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 재정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교단에서 뭔가를 마련해주지 않는 한 정말 사각지대이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 나이에 맞는 은퇴 준비 방법 ▲현재 플랜으로 예상되는 은퇴 소득 ▲롱텀케어(Long-Term Care) 준비 전략 ▲401(k) 및 IRA 활용법 ▲평생 은퇴 인컴을 위한 어뉴이티(Annuity) 활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 대표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6월 어뉴이티 세미나

누구에게
그리고 왜!
어 뉴 이 티 가
필요할까요

6월 12일 (금) 저녁 7시

은행 CD와 어뉴이티의 차이
401k, IRA, TSP를 반드시 어뉴이티로
롤오버해야 하는 이유
고정인컴 어뉴이티의 장점과 단점
어뉴이티 광고와 현실적 플랜 구분법

3435 WILSHIRE BLVD 14FL,
LOS ANGELES, CA
혹은 ZOOM 으로 참가

참가문의 ▶ 이메일과 문자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4개 교회 은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 내 나이, 지금 부터 얼마씩 모아야 은퇴가 가능할까요?
- 현재 플랜으로 68세, 한달 은퇴 인컴은 얼마나 될까요?
- 우리 부부 롱텀케어를 준비한다면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 401k나 IRA, 평생 은퇴 인컴 어뉴이티 롤오버 방법
- 부동산 렌트와 어뉴이티 비교책
- 생명보험에서 은퇴자금 쓰는법과 리빙베네핏, 롱텀케어

- 6/5 금 10:30, 나성 북부 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 6/16 화 10:3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 6/23 화 10:30,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 6/30 화 10:30, 월넷 축복교회**
20801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참가문의: SYMOONMONEYTALK@GMAIL.COM 626-827-9599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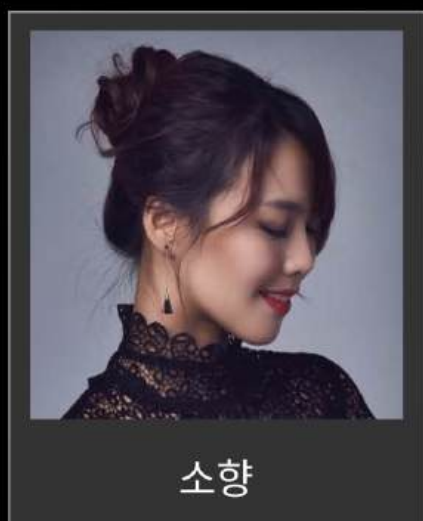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text)
www.axs.com

On stage with: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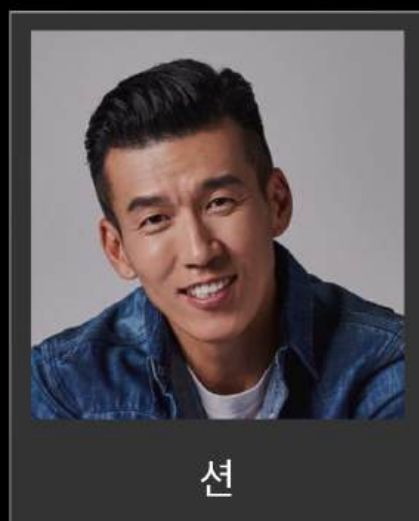
Special guests



소향



조혜련



선



드러머 리노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목사

Producer Troy Choi

